

유럽으로부터

4, March, 2016 | 정준화 에디터



장 미셸 오토니엘이 5년 만에 한국에서 여는 개인전의 주제는 연꽃이다. 색색의 유리구슬 조각과 드로잉은 국제갤러리 3관을 초현실적인 정원으로 바꾸어놓았다. 작가는 진흙탕에서 피어난 아름다움이라는 상징성과 빛에 따라 봉오리를 열고 닫는 변화무쌍함 때문에 연꽃이라는 소재에 흥미를 느끼게 됐다고 말한다. 시적인 리듬감이 깃든 전시 <검은 연꽃>은 3월 27일까지 감상할 수 있다. 신표현주의는 1970-80년대 유럽 미술계에서 목격된 새로운 움직임이었다. 일군의 젊은 작가들은 개념미술과 미니멀리즘에 피로감을 드러내며 감정의 표현에 솔직한 회화로 회귀하고자 했다. 그 대표 주자로 꼽히는 마 르쿠스 뤼페르츠와 **AR**. 핑크의 2인전이 3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이유헌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랜 세월을 걸쳐 영향을 주고받으며 독자적인 세계를 일궈온 두 예술가의 궤적을 나란히 견줄 수 있는 기회다